

철도안전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용역 결과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< 보도 내용 (중앙일보, 10.26) >

◆ 떼어내려던 철도 유지보수, 당분간 코레일에 놔둔다

- 정부가 분리하려고 했던 유지보수 업무를 넘겨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그대로 두기로 방침(검토대상이었던 철도공단도 준비가 덜 되어있다는 판단)
- 다만,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, 유지보수 분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

□ 정부가 ‘철도의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그대로 코레일에 두기로 방침을 정했다’는 기사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이례적으로 발생한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철도안전체계를 심층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컨설팅 용역('23.3~, 보스턴컨설팅그룹(BCG))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.

- 컨설팅 용역을 통해 철도 시설유지보수 업무체계를 포함한 철도안전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있으며, 그 결과는 11월에 나올 예정입니다.

□ 정부는 컨설팅 결과를 참고하여 철도안전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담당부서	철도안전정책관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철도안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강문 (044-201-4602)